

계녀사라



[해제]

<계녀사라>는 작자 미상의 여성 교훈가사로, 특별한 표제를 붙이지 않은 채 주로 한글 서간을 모아 성책(成冊)한 편자 미상의 필사본에 또 다른 가사 작품인 <츠퉁간별곡> 및 <효성가라>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기사 방식은 각 면 상하로 내외구 2행씩 병기한 귀글체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필체가 난해한데다 방언과 오기가 섞여 있어 그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신유년(辛酉年)에 약관의 나이로 어머니를 여윈 한 남성이 당시 강보에 싸여 있던 두 여동생이 성장하여 출가하게 되자, 남매간의 우애와 더불어 출가한 여성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적은 작품이다. 작품 내용상 작자의 연고지는 경상도 대구(大邱) 지역인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효(孝)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중국의 ‘이십사효(二十四孝)’의 고사를 예로 들어 열거하며 효의 실천을 강조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어 남편을 대하는 일부터 근농(勤農), 사구고(事舅姑), 접빈(接賓)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절목을 세세하게 지적하면서, 당시 세태의 부박함을 경계하고 고인(古人)의 아름다운 행실을 힘써 본받을 것을 권면하였다.

[원문]

이룡가던구인가헌 친증조는
 이앗열미 군머먹고비삼아가 덜
 익은것 식모삿을 기시리이불경
 허다 증조의턱 쫓겨간덜 뉘탓허
 리낭구쌍가 뉘신어미 불촉허
 득 성을니이불효허득 증난의턱
 초달흔들 뉘탓허리시모아희 옷
 썬푸던 링조의턱 멀이허고식
 압희기 쫓짓던 증영의턱 소박
 허고□□효허 진원이난 조정장의 (이하 누락)
 계녀사라

세상의 만한중의 사람밧씩 쏘인남양
 사람의 만한중의 남이밧씩 쏘인양
 만고마는 이사람의 남이가 뉘읍사리
 남이스 만큰마난 우리남의 남다려까
 천부디모 영한후이 울리을 노혈적의
 유용유비 씬을꾸고 유희유사 점을하늬
 이남이여 썩맛기로 초릭로 심장한이
 남미형지 일신으로 분형이거 하늬소다
 낭그로 비할딘디 일디목의 전가디요
 쫓흐로 비할딘디 담안의 상식화요
 날뎁성을 비할딘디 두덜우희 척영도요
 향열을 비할딘디 모릭우희 안형이라
 훈일분분 디을부이 난형노지 이안인가

불효하고 불효하기 날갯한놈 싹이읍고
익잔하고 가금하고 너희밭기 다시읍다
원슈로드 원슈로다 신유연이 원슈로다
익익구희 우리자모 호전망극 무산일고
나도약관 시절리요 너희강보 사허잇다
여자의 천성인가 어미밭게 모라근는
하물며 어린간장 부모명을 알듯말듯
유유한 저창천아 이웃디 차마한요
동신토록 부모싱 디순의 효성이요
일반의 역일반은 무장의 효성이요
이성으로 씻긴눈물 증자의 효성이요
턱이비 살을디니 조로의 효성이요
이름우익 잉어난이 왕상의 효성이요
문가운디 독순난이 링둥의 효성이요
규자을 품이품은 국적의 효성이요
비기우히 부치흙은 화향의 효성이요
칠십의 아룡오스느 노릭자의 효성이요
부모형지 말긋함은 민자근의 효성이요
감디을 가초오이 동싱의 효성이요
달을저서 반찬하이 모중의 효셔이요
디효날효 디성효스 거록하고 장할시고
무수한 전효도을 하낫도 썸뵈밧고
무신나이 그리마닉 조모자영 모라난고
국아편 일너븐이 바아니효 이안인가
그로고로 자라나셔 너희형지 달성한이
명문그록 어디시면 적덕보가 지딤인?
디구라 하난골은 칠십인듀 옷씀이요
부모형지 말뵈함은 민자근의 효성이요
감디을 가초오이 동싱의 효성이요
오른은 국형지요 물밥은 사허지
라변성함도 피차읍고 현혁함도 피차읍다
묘묘옷골 최낭군과 흔흔장부 이서방이
넙문차여 전안한이 그귀안이 충도할리
너희형지 압피눗코 채랑이랑 마듀안자
이리보고 한번윳고 저리보고 한번윳고
윳고윳고 다시윳고 도라안자 싱각한이
이러한 식상조미 우리조모 기시더면
디극하신 조이시로 오죽히 도화실가

흥진비리 송정으로 인경진감 난감하다
 이것저것 던져두고 너희이미 중성한이
 힘실일리 만하거등 경기할일 읍살손양
 옛글을 불족시면 유인디득 궁난하다
 모시속중 관디편은 무왕후비 득칭이라
 군주송여 본을바다 규실부디 활락하고
 치월중의 팔월중은 듀공원성 유훈이라
 무의무감 전혀하나 위금즈미 꺾히하고
 예기의 니칙편은 여즈빅칭 시러신이
 사구고 봉문자며 접빈직 봉지사며
 총부기부 분별하고 정여열 기록하이
 규순덩덩 웃씀이요 침자방적 니식로다
 소학편 열여전은 모든성현 모훈으로
 긴한말삼 썩여니여 소리소리 역겨한이
 다리청 울거든며 머리빛고 손을슛고
 좌우피용 몸을삿가 구고님째 혈알하고
 바로비디 안인고기 님의로 안이먹고
 바로피지 안이자리 함부독 안이아고
 비기우히 말안하고 씨기드리 디안이성
 이르한 저칭실은 잉부을 경괴하고
 보미면 양잠하여 윗처위견 일을숨고
 녀름이면 김죽기면 같이면 올말감고
 허다흔 저범절은 엇지다 기록하리
 너희비록 무식하나 숙여널여 썩을바다
 사구고 하난도리 효성이 웃씀이요
 봉구고 하난도리 유순하미 웃씀이요
 봉지사 하난도리 정성이 엇씀이요
 접빈직 흥난도리 공경하미 엇씀이요
 형지간 화락기나 우의가 웃씀이요
 일가답안 화락기난 안갈느기 웃씀이
 양자씨 하느법은 음식을 덩키두고
 이윗을 사것법은 마참느기 웃씀이요
 비북은 분린병은 은위를 병칭하고
 세간은 사느법은 슬피기을 믹오하고
 거가하느 번사느 근근금화 순리인리라
 그밭기 소소한일 엇디다 믹거할라
 그르라 직금사람 되단말삼 잠간하마
 형지간 뉘흔우리 즈아시로 덕킨라과

부부간의 말을지어 한번말히 안이듯고
두번말히 안이듯고 삼사번 그듯하면
반근이나 올키더러 말경의 의뵈기고
이웃간의 뉘흔일 호박들과 달기식
흔극을 지어니야 기엿의 덩뵈기고
시간도 잘못살면 절용하고 잇긴치로
남이그를 닌신오면 만이뵈고 적기뵈고
닉거을 남쑈주면 적기뵈고 만잇뵈고
빈빈찬은 음식복 딥안의도 상자읍고달
치안인 훗미가리 이웃도 슈용읍고
그러한 그삼람의 남어말만 듯잘하며
손임왓다 기뵈한면 반찬이웃도 슈용읍고
걱뵈하고 지천소리 손의거의 뵈뵈긴다
남이첨영 브난가상 전후좌우 살피노라
순으로 하일너면 업순느기 지실니고
성을니여 척망억을 디어 더욱한이
어화식상 저□□인 남어짐을 형할손야
너의도 이목잇서 듯고보고 못할손야
허다한 절른일을 부디부디 조심하야
고인득형 썸을뵈고 금인풍속 말지어다

[현대역]

애룡27 가던 구인 같은 친중자는 오얏 열매 굵어 먹고 비삼아가 덜 익은 것 시모 뜻을 거스르니 불경(不敬)하다 증자의 덕 쫓겨간들 뉘 탓하리 나무 깎아 모신 어미 불측하다 성을 내어 불효하던 정란(丁蘭)28의 덕 초달(楚撻)29한들 내 탓하리 시모 앞에 옷끈 풀던 맹자의 덕 멀리하고 시아비께 꾸짖던 종영의 덕 소박하고 □□효의 진 원이난 조정장의 (이하 누락)

세상의 많은 중에 사람밖에 또 있느냐 사람의 많은 중에 남매밖에 또 있느냐 많고 많은 이 사람들에게 남매가 뉘 없으리 남매야 많건마는 우리 남매 남다를까 천부지모(天父地母)1 정한 후에 우리를 낳을 적에 유웅유비(維熊維羆)2 꿈을 꾸고 유훼유사(維虺維蛇)3 점을 하네 이남이녀(二男二女) 짝 맞추어 차례로 성장(生長)하니 남매형제 일신(一身)으로 분형이거(分形離去)4 하였구나 나무로 비할진데 일지목(一之木)5의 잔가지요 꽃으로 비할진데 담 안의 상사화요

날짐승을 비할진데 두령 위의 척령조6요 행렬(行列)을 비할진데 모래 위의 안행(雁行)7이라 훈일분고 지을부이8 난형난제(難兄難弟)9 이 아닌가 불효(不孝)하고 불효하기 나 같은 놈 짝이 없고 애잔하고 가금(可矜)10하기 너희밖에 다시 없다 원수로다 원수로다 신유년(辛酉年)이 원수로다 애고구희11 우리 자모(慈母) 호천망극(昊天罔極)12 무슨 일이고 나도 약관(弱冠) 시절이요 너희 강보에 싸여있었다 여자의 천성인가 어미밖에 몰랐는데 하물며 어린 간장(肝腸)13 부모 정을 알듯말듯

유유(悠悠)한14 저 창천(蒼天)15아 이 어찌 차마 하느뇨 종신(終身)토록 부모생 대순(大舜)16의 효성(孝誠)이요 일반(一飯)의 역일반(亦一飯)은 무왕(武王)의 효성이요17 이 정성으로 떨어지는 눈물 증자(曾子)18의 효성이요 백리(百里) 쌀을 지니 자로(子路)19의 효성이요 얼음 위에 잉어 나니 왕상(王祥)20의 효성이요 눈 가운데 죽순 나니 맹종(孟宗)21의 효성이요 굴을 품에 품은 육적(陸績)22의 효성이요 베개 위에 부채함은 황향(黃香)23의 효성이요 칠십에 색동옷은 노래자(老萊子)24의 효성이요 모형제 말 못함은 민자건(閔子騫)25의 효성이요 갑(匣)26을 지어 갖추니 동영(董永)27의 효성이요 달을 지어서 반찬하니 모종의 효성이요 대효(大孝)28 날효29 지성스러운 효사(孝事) 기록하고 장할시고 무수한 전효도(傳孝道)30를 하나도 본 못 받고 무슨 나이 그리 많아 자모자영 모르시고 육아편(育兒篇) 일렀으니 이 아니 효 아닌가 그러므로 자라나서 너희 형제 달성(達成)하니 명문가를 얻었으면 적덕보가(積德保家)31 제 집인가 대구(大邱)라 하는 고을은 칠십일 주(州) 으뜸이요

부모형제 말 못함은 민자건의 효성이요32 갑을 지어 갖추니 동영의 효성이요 어른은 육 형제요 물밥은 사 형제라 번성함도 피차 없고 현赫(軒赫)33함도 피차 없다 묘묘(妙妙)34 옥골(玉骨)35 최낭군과 현현장부(軒軒丈夫) 이서방이 입문(入門)하고36 차려서 전안(奠雁)37하니 그 귀안(貴顏)38이 충성스럽구나 너희 형제 앞에 놓고 최랑(崔郎)이랑 마주 앉아 이리 보고 한 번 웃고 저리 보고 한 번 웃고 웃고 웃고 다시 웃고 돌아 앉아 생각하니 이러한 세상 재미 우리 자모 계셨더라면

지극하신 자애심으로 오죽이나 좋아하실까 흥진비래(興盡悲來)39 상정(常情)40으로 인정진감(人情震撼)41 난감하다 이것저것 던져두고 너희 이미 장성(長成)하니 힘쓸 일이 많거든 경계할 일 없을소냐 옛 글을 볼작시면 유인지득(唯人知得)42 극난(極難)하다43 모시(毛詩)44 수장(首章) 관저편(關雎篇)45은 무왕후비(武王后妃)46 덕행이라 군자 숙녀 본을 받아 규실(閨室) 부디 환락하고 칠월장(七月章)47에 팔월장(八月章)은 두견 원성(怨聲)48 유혼(幽魂)49이라 무애무감 전혀 하나 위공 재미 귀히 하고 예기(禮記)의 내칙편(內則篇)50은 여자 백행(百行)51 실었으니

사구고(事舅姑)52 봉분제(奉墳祭)53며 접빈객(接賓客)54 봉제사(奉祭祀)55며 총부(冢婦)56 계부(季婦)57 분별하고 정렬(貞烈)58을 기록하니 유순정정(柔順貞正)59 으뜸이요 침자방적(針子紡績)60 내사

(內事)로다 소학(小學)편 열녀전(烈女傳)은 모든 성현(聖賢) 모훈(模訓)61으로 깬한 말씀 써 놓아 소리 소리 엮어 하니 다리청을 걸으며 머리 빗고 손을 씻고 좌우피용(左右被容)62 몸을 닦아 구고(舅姑)님께 혈알(頁謁)63하고 바르게 베지 않은 고기 임의로 아니 먹고 바로 퍼지 않은 자리 함부로 아니 앉고 베개 위에서 말 안하고 짜게 들지 아니하니

이러한 저 행실(行實)은 잉부(孕婦)64를 경계(警戒)하고 봄이면 양잠(養蠶)65하여 위치위건(爲處爲絹)66 일을 삼고 여름이면 비단을 짜면은 가을이면 울말67 감고 허다한 저 범절은 어찌 다 기록하리 너희 비록 무식하나 숙녀열녀(淑女烈女) 본을 받아 사구고(事舅姑) 하는 도리 효성이 으뜸이요 봉구고(奉舅姑) 하는 도리 유순함이 으뜸이요 봉제사(奉祭祀) 하는 도리 정성이 으뜸이요 접빈객(接賓客) 하는 도리 공경함이 으뜸이요 형제간 화락(和樂)하기는 우애가 으뜸이요

일가(一家) 집안 화락하기는 안 가르는 것이 으뜸이요 양자(兩者)68께 하는 법은 음식을 정성(精誠)스레 두고 이웃을 사귀는 법은 많이 참는 것이 으뜸이요 비복(婢僕)69을 부리는 법은 은위(恩威)70를 병행(並行)하고 세간71을 사는 법은 살피기를 배워 하고 거가72하는 번사(繁事)73는 근근금화(謹謹金貨)74 순리(順理)니라 그 밖에 소소한 일 어찌 다 매기랴 그르다 지금 사람 되는 말씀 잠깐 하마 형제간 좋은 우리 자주로 지켜나가 부부간에 말을 지어 한 번 말해 아니 듣고

두 번 말해 아니 듣고 삼사 번 그릇하면 반 정도나 옳게 들어 말결에 의 바뀌고 이웃간에 좋은 일 호박 즐기와 딸기 색은75 극(隙)76을 지어내어 기어이 정 비끼고 세간도 잘못 사면 절용(截用)77하고 아낀 채로 남의 것을 대신하면 많이 받고 적게 주고 내 것을 남에게 꾸어주면 적게 주고 많이 받고 변변치 않은 음식복 집 안에도 상자(上者)78 없고 가당치 않은 호미 가래 이웃도 소용없고 그러한 그 사람의 남의 말만 곧 잘하며

손님 왔다 기별하면 반찬 이웃도 소용없고 걱정하고 꾸중 소리 손님에게 거의 다 들린다 남의 침녕(諂佞)79 보는 가에 전후좌우 살피노라 손으로 하 이르면 업신여기기 짓을 내고 성을 내어 책망함을 도리어 더욱 하니 어와 세상 저□□은 남이 어짐을 혈뜰을소냐 너희도 이목(耳目) 있어 듣고 보고 못할소냐 허다한 그른 일을 부디부디 조심하여 고인득행(古人得行)80 본을 받고 금인풍속(今人風俗)81 말지어 다

[각주]

27) 애룡 : 내용 미상.

28) 정란(丁蘭) : 한(漢)의 이름난 효자로 각목사친(刻木事親)의 고사가 전함. 부모가 일찍 죽게 되자 정란이 그 형상을 나무로 조각하여 살아계신 부모인 듯 정성스레 모셨는데, 어느 날 양친의 목각상이 슬프게 눈물을 흘리자 그 연유가 목각상을 함부로 대한 자신의 부인에게 있음을 알고 대노하여 부인을 내쫓았다 함.

29) 초달(楚捷) :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림.

1) 천부지모(天父地母) :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모심.

2) 유웅유비(維熊維羆) : <시경(詩經)> <소아(小雅)>편 ‘사간(斯干)’장에 나온 시구로, 작은곰과 큰곰을 말함. 곰은 힘이 세고 양(陽)에 속하는 짐승이므로 남자를 비유함.

3) 유훼유사(維虺維蛇) : <시경> <소아>편 ‘사간’장에 나온 시구로, 살무사와 뱀을 말함. 뱀은 음성(陰性)의 동물이므로 여자를 상징함.

4) 분형이거(分形離去) : 몸만 따로 떨어져 나옴.

5) 일지목(一之木) : 같은 나무.

6) 척령조(鵲鳩鳥) : 할미새. <시경> <소아>편 ‘상체(常棣)’장에 ‘鵲鳩在原 兄弟急難’이라는 시구가 있는데, 형제간에 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여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 ‘척령’은 형제간의 우애를 비유함.

7) 안행(雁行) : 기러기가 줄지어 날.

8) 훈일분고 지을부이 : 내용 미상.

9) 난형난제(難兄難弟) : 누구를 형이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비슷함을 말함.

10) 가금(可矜) : 가련하고 불쌍함.

11) 애고구희 : 내용 미상.

12) 호천망극(昊天罔極) : 하늘이 넓고 끝이 없다는 뜻으로, 부모의 은혜가 매우 크고 끝이 없음을 이르는 말.

13) 간장(肝腸) : 간과 창자. 몹시 애타는 마음.

14) 유유(悠悠)한 : 아득함 또는 한가함.

15) 창천(蒼天) : 푸른 하늘.

16) 대순(大舜) : 중국 고대의 황제인 순 임금의 말하며, 효감동천(孝感動天)의 고사가 전함. 순 임금의 부친인 고수(瞽瞍)가 계모를 맞이한 후 계모가 순을 심하게 박대하였으나, 순이 변함없이 지극한 효를 다하자 이에 감동한 하늘이 동물을 부려 순의 농사를 도와주게 하여 해마다 풍년을 이루었다는 고사임.

17) 무왕(武王)의 효성 : <소학(小學)> 「계고(稽古)」 제9장에 나오는 무왕의 고사임. 무왕은 효성이 지극했는데, 부친인 문왕이 병이 났을 때 관대(冠帶)를 벗지 않고 봉양했으며, 문왕이 밥을 한 번 먹으면 한 번 먹고, 두 번 먹으면 따라 두 번 먹으며 효를 다했다고 함.

18) 증자(曾子) : 성은 증(曾), 이름은 참(參)으로 자(字)는 자여(子輿)로서, 공자(孔子)의 제자이며, 교지통심(嚙指痛心)의 고사가 전함. 증자가 산에 나무하러 가고 없을 때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증자가 돌아오지 않으므로 모친이 손을 깨물어 다급함을 알리자, 이에 나무하던 증자가 가슴에 통증을 느껴 집으로 급히 달려와서 그 연유를 알게 되었다고 함.

- 19) 자로(子路) : 성은 중(仲), 이름은 유(由), ‘자로’는 자(字). 공자의 제자로서 부미양친(負米養親)의 고사가 전함. 자로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백여 리나 떨어진 먼 곳까지 가서 고된 일을 하고, 그 품삯을 받은 돈으로 쌀을 사와서 부모를 공양했다고 함.
- 20) 왕상(王祥) : 진(晉) 나라 때 이름난 효자로서 와빙구리(臥冰求鯉)의 고사가 전함. 왕상을 박대하던 계모가 병으로 앓아눕자 겨울철이었음에도 체온으로 얼음을 녹여 계모가 좋아하는 잉어를 구해다가 정성스레 병간호를 하여 계모를 감동시켰다고 함.
- 21) 맹종(孟宗) : 오(吳) 나라의 이름난 효자로, 곡죽생순(哭竹生筍)의 고사가 전함. 홀어머니가 병이 나서 죽순탕을 찾았으나 한겨울이라 죽순을 구할 수 없으므로 대나무를 끌어안고 울고 있자 하늘이 그 효성에 감동하여 죽순이 돋아나게 해 주었다고 함.
- 22) 육적(陸績) : 동한(東漢) 때의 이름 높은 효자로, 회굴유친(懷橘遺親)의 고사가 전함. 육적이 손님의 잔칫집에 갔다가 굴을 좋아하는 모친을 위해 굴을 품에 몰래 숨겨 나왔다는 고사임.
- 23) 황향(黃香) : 한(漢)의 이름난 효자로, 선침온금(扇枕溫衾)의 고사가 전함. 어미를 일찍 잃은 황향이 홀로 남은 아버지를 위해 여름에는 덥지 않게 베개 위에서 부채질을 하고, 겨울에는 춥지 않게 자신의 몸으로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 극진히 모셨다고 함.
- 24) 노래자(老萊子) : 주(周)나라 때 사람으로, 희채오친(戲綵娛親)의 고사가 전함. 70의 나이에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부렸다고 함.
- 25) 민자건(閔子騫) : 춘추(春秋) 때 사람으로, ‘자건’은 자(字)이며, 이름은 손(損). 단의순모(單衣順母)의 고사가 전함. 민자건이 계모의 박대로 갈대꽃으로 지은 옷을 입고 추운 겨울을 지내는 것을 알고, 그의 부친이 크게 화를 내며 계모를 쫓아내려 하자, 민자건이 남겨진 이복동생들의 안위를 들어 이를 진심으로 만류하므로 이에 감동한 계모가 민자건을 친자식처럼 사랑했다고 함.
- 26) 갑(匣) : 널을 말한 듯함.
- 27) 동영(董永) : 한(漢) 나라 때 사람으로, 매신장부(賣身葬父)의 고사가 전함. 아버지가 죽었으나 너무 가난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자 자신이 종으로 팔려가기로 하고 그 삿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고 함.
- 28) 대효(大孝) : 지극한 효성이나 효자.
- 29) 날효 : ‘생효[生孝]’를 이르는 듯함.
- 30) 전효도(傳孝道) : 전해 내려온 효도.
- 31) 적덕보가(積德保家) : 덕을 쌓아 집을 보호함.
- 32) 효성(孝誠) : 바로 다음 행과 함께 앞에서 이미 언급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 필사상의 오류로 인한 중복으로 보임.
- 33) 현赫(軒赫) : 품채가 당당하고 빛남.
- 34) 묘묘(妙妙) : 젊고 아리따운.
- 35) 옥골(玉骨) : 옥같이 뛰어난 품채.
- 36) 입문(入門)하고 : 문으로 들어가.
- 37) 전안(奠雁) : 혼인 때 신랑이 신부의 집에 기러기를 가지고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하는 예.
- 38) 귀안(貴顏) : 귀한 얼굴. 귀한 모습.
- 39) 흥진비래(興盡悲來) : 즐거운 일이 지나가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는 뜻임.
- 40) 상정(常情) : 인지상정(人之常情)의 준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보통의 생각.
- 41) 인정진감(人情震撼) : 인정이 크게 울리어서 뒤흔들림.

- 42) 유인지득(唯人知得) : 사람이란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을 앎.
- 43) 극난(極難)하다 : 매우 어려움.
- 44) 모시(毛詩) : 중국 한(漢)나라 사람 모형(毛亨)과 모장(毛萇)이 전한 중국 고대의 시. 곧, 지금의 <시경>을 말함.
- 45) 관저편(關雎篇) : <시경>에 첫 번째로 실린 시.
- 46) 무왕후비(武王后妃) : 주(周) 무왕의 비.
- 47) 칠월장(七月章) : <시경> <국풍(國風)> ‘빈(邠)’편에 실린 ‘칠월장’을 말함.
- 48) 원성(怨聲) : 원망하는 소리.
- 49) 유혼(幽魂) : 죽은 넋.
- 50) 내칙편(內則篇) : 중국 한 나라 때에 편찬된 <예기(禮記)>의 편명으로, 주로 여자들이 행해야 하는 예절이나 의식이 기록되어 있음.
- 51) 백행(百行) : 백 가지 행실. 온갖 행실.
- 52) 사구고(事舅姑) : 시부모를 모심.
- 53) 봉분제(奉墳祭) : 선영을 잘 받듦.
- 54) 접빈객(接賓客) : 집을 찾는 손님을 잘 접대함.
- 55) 봉제사(奉祭祀) : 제사를 잘 모심.
- 56) 총부(冢婦) : 적장자(嫡長子)의 아내.
- 57) 계부(季婦) : 집안의 맏며느리를 제외한 다른 며느리.
- 58) 정렬(貞烈) : 여자의 행실이나 지조가 곧음.
- 59) 유순정정(柔順貞正) : 성질이 부드럽고 온순하며, 정절을 지키고 마음이 바름.
- 60) 침자방적(針子紡績) : 침선(針線)과 베 짜는 일.
- 61) 모훈(模訓) : 본보기가 되는 가르침.
- 62) 좌우피용(左右被容) : 가까이 에 두고 치장에 소용되는 물품.
- 63) 혈알(頁謁) : 머리 숙여 문안을 여쭙는 공손한 행동.
- 64) 잉부(孕婦) : 아이를 밴 여성.
- 65) 양잠(養蠶) : 누에를 기름.
- 66) 위처위견(爲處爲絹) : 생활을 위해 누에를 쳐서 명주를 짤.
- 67) 올말 : 내용 미상.
- 68) 양자(兩者) : 두 분 부모님.
- 69) 비복(婢僕) : 집 안에서 부리는 노복(奴僕).
- 70) 은위(恩威) : 은혜와 위엄.
- 71) 세간 :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
- 72) 거가 : ‘거간(居間)’의 오기인 듯함.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임.
- 73) 번사(繁事) : 번거로운 일.
- 74) 근근금화(謹謹金貨) :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삼감.
- 75) 딸기 색은 : 내용 미상.
- 76) 극(隙) : 틈.
- 77) 절용(截用) : 쓰는 것을 끊음. 쓰지 못함.

78) 상자(上者) : 윗 사람.

79) 침녕(諂佞) : 몹시 아첨함.

80) 고인득행(古人得行) : 고인이 얻은 행실.

81) 금인풍속(今人風俗) : 오늘날 사람들의 풍속.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